

동양미학의 진수 깨우쳐준 죽비같은 책

동양화가 문봉선씨가 뽑은
《동양의 마음과 그림》



“일본인의 눈으로 중국회화와 동양예술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이 책을 통해 저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묵화는 지루하기 그지없는 반복의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동작 하나 하나의 의미를 일깨워준 겁니다.”

춤을 출 때 무희가 연출하는 하나 하나의 동작은 단절이 아니라 반복의 연결과정이다. 만약 그 하나 하나의 동작이 완전히 못하면 춤은 완성될 수 없다. 그림도 마찬가지다. 특히 동양화는 헤아릴 수 없이 거듭되는 반복의 과정을 거쳐 점 하나, 획 하나가 완벽할 때 마침내 완성된다. 중견 동양화가 문봉선(38)씨는 이같은 미학관을 《동양의 마음과 그림》(김바라세이코, 새문사)에서 얻었다.

“일본인의 눈으로 중국회화와 동양예술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이 책을 통해 저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묵화는 지루하기 그지없는 반복의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그 동작 하나 하나의 의미를 일깨워준 겁니다.”

이 책은 동양미학에 대한 옛사람들의 생각까지 확연히 깨닫게 이끌었다. 그들은 단순한 풍광을 담기 위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기운생동, 즉 음양의 조화를 생각하고 그렸다. 기운의 조화는 곧 개성으로 나타났다. 이런 미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는 수묵화가 천년의 세월 동안 이어질 수 있었다.

“수묵화는 단순한 흑백의 조화만이 아닙니다. 그림에 인간의 정신까지 담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묵화를 그리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정신수양의 정도가 바로 그림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림은 정신으로 그리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동안 정신수양을 쌓기 위해 수많은 책을 읽은 그는 얼마전 화실문을 박차고 나섰다. 전국을 휘젓고 다니며 우리 산천만이 갖고 있는 개성을 화폭에 담아 왔다.

“이제는 우리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으로 그림을 그릴 때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 받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풀 한포기, 나무 하나가 곧 예술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수묵화를 그리는 사람에게 남겨진 숙제죠.”

그 숙제를 그는 마침내 풀었다. 그는 지난 1일부터 학교제에서 <섬진강, 붓길따라 오백리>라는 개인전을 열고 있다.

— 오원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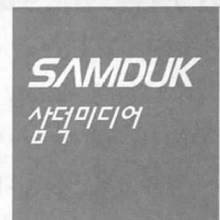
열린 마당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①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 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팝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代行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 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인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 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인쇄·제본공장 : 465-4707(代)